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유형과 특징

허영선*

<차례>

- I. 머리말
- II.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유형
- III.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특징
- IV.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4·3시기에 벌어졌던 아동에 대한 학살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차별 학살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동은 성인들과 달리 위협으로부터 헤쳐 나갈 힘이 미약했으며,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자기 방어능력, 저항의 힘조차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피신하다가 무차별 학살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하였으며 굶주려 죽기도 하였다. 4·3시기 아동학살은 평화와 인권이 위배되는 극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아동에 대한 학살을 목격한 직·간접 생존자들의 구술을 통해 어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떤 형태로 아동 학살이 이뤄졌는지, 아동학살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추출해 낸 것이다.

반문명적인 4·3시기 아동학살이 상징적인 미래 교훈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없는 아동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아동학살, 아동 희생자, 학살의 유형, 초토화작전, 행방불명, 집단학살, 비인간화, 무차별 학살

I. 머리말

전쟁과 내전에서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존재는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이다.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제주4·3은 철저히 소수자의 인권이 멸절당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근거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10세 이하 어린이(5.8%, 814명)와 61세 노인(6.1%, 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 2,985명)도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¹⁾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주4·3시기 아동에 대한 잔혹한 학살의 대부분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 무엇보다 전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학살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어떠한 학살의 이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갖가지 유형의 학살은 제주4·3의 야만성을 극명하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p.537.

보호받아야 할 아동 인권 유린의 극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고, 도피할 힘마저 없었던 아동에 대한 학살은 4·3 무차별 학살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은 어떠한 형태로 이뤄졌으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아동에 대한 학살을 목격한 직·간접 생존자들의 구술을 통해 어떤 형태로 아동학살이 이뤄졌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유형

1. 신고자료에 나타난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유형

제주4·3시기 15세 이하 아동 희생자들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4·3실무위원회 및 제주4·3위원회의 2001년 5월 30일 현재 희생자신고 접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한 희생자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참조하기 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희생 양상이 기재가 된 1995년 제주도의회의 신고 자료도 선택해 분석했다.

이러한 양적 자료는 본 논문에서 생존자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할 때 하나의 근거로 삼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광범위한 희생자 유형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희생자 통계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희생된 영아들, 행방불명 혹은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 아직까지 당사자나 유족 가운데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웃의

신고 등 간접 체험자들의 신고도 따르면서 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고자가 달라 이중신고한 경우도 일부 있으며, 이명(異名)을 쓰기도 했다는 점이다.

2003년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하 아동의 희생은 주로 무차별 학살이 1,250명(82.4%)이었다. 이 가운데 토벌대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 1071명, 무장대에 의한 무차별 학살 179명이며, 행방불명 214명(14.1%), 후유장애 43명(2.8%) 등이었다. 이밖에 기아로 인한 사망, 수용소 혹은 부모와 감옥에 수감중 사망한 예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도의회에 신고된 15세미만 아동 희생자는 총 1408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희생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토벌대에 의한 무차별 학살 962명, 무장대에 의한 학살 135명이며, 행방불명 149명, 기아사망 41명, 주정공장²⁾ 등 수용소 수감중 사망 31명, 방치 16명, 기타 74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한 학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신중 혹은 집단 학살터에서 부모와 함께 무차별 학살되거나 가옥 소개시 학살된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2. 주변인들의 인식으로 본 아동학살 유형 분석

다음은 제주4·3을 겪었던 생존자들의 직접 구술을 통해 희생 유형의 사례를 찾아내 분류해 본 것이다. 무차별 학살 가운데 ① 피신 중에 학살을 당한 경우는 '피신학살', ② 집단학살터에서의 학살의 경우 '집단

2) 1948~1949년 군·경은 체포되거나 귀순한 제주도민들을 이곳 제주주정공장에 수용했다. 일제강점기때 동척회사로 제주도민들을 수탈했던 장소는 4·3때 수용소로 바뀌어 또 다른 형태로 제주도민들을 괴롭혔다.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학살', ③ 가옥 소개시 불에 타 숨진 경우 '소개학살', ④ 피신 중에 굶주려 죽은 경우 '기아학살', ⑤ 행방불명 ⑥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 '수감사망', ⑦ 임신부의 태아 학살인 경우 '태아학살', ⑧ 도피자가족으로 지목돼 학살된 경우 '도피자가족학살'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표기는 구술의 생생함을 위하여 가능한 구술자의 제주어를 살리되 구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따랐다.

1) 피신학살

초트화작전 기간 동안 중산간 마을에서 피신 중이던 수많은 아동이 학살됐다. 특히 영·유아들의 희생이 컸다. 어떤 집안은 하루 동안에 열 두 명의 아이들과 친척을 잃었고, 굴 속으로 피신했다가 발각되어 아이가 처참하게 살해되기도 했다.³⁾

학살을 목격한 아동 생존자들의 눈에도 그것은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은 죽음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피난지에서 갓난아이들의 죽음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생명체에 대한 존엄은 되풀이되는 광포성 앞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등에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학살됐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아기 업영 피신 다니던 곱앙 잇단(숨어있다가) 토벌대에 자식들이 다 죽엇덴 험디다. 우진이 열네 살, 일곱 살 여동생, 두 살난 아기가 죽엇수다. 일곱 살과 두 살은 성도 모르니까 희생자 명단에 올리지도 았앗수다. 돌오름 근처에서 토벌대가 다올리난(내쫓으니) 어머니 얘기

3) 안인순(1934년 생, 표선면 가시리), 임병모(1930년 생, 서울시 성동구) 구술 사례 참조

구덕 지언 뛰어가단 옆어지난 다 죽었수다.”⁴⁾

피신하고 있다가 토벌대에 쫓겨 아이를 업고 갈팡질팡 달리다가 돌아보면 아이가 없어지더라는 식으로 말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그 죽음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살의 공간에서 죽음은 어느새 무감각해졌던 것이다.

“남편은 대구로 끌려간 시체도 못 찾고. 선흘리 집칸에 이신디 집 불캐 와부러가난 겁결에 아기 들쳐업고 뛰쳐나가고 총은 팡팡 쏘아가고 업언 도망다니단 보난 등에 부튼 두 살 난 아들이 죽어 이섯주.”⁵⁾

피신의 공간은 어디든 안전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온 가족이 함께 피신을 다니는 것은 위험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신을 다녔다. 그것은 가문의 멸족을 막아보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대개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멸족을 면하기도 했지만 멸족을 당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1949년 1월말 경 남원면 의귀리 지경에서 토벌대를 피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땅굴에서 생활하던 김홍석 가족의 학살 사례는 그러한 예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장남을 홀로 도망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김홍석은 동생들의 학살 장면을 이렇게 목격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장남인 나보고 아버님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일어서보니 군인 2명이 내가 있는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고 난 무조건 뛰었어요. 뛰다보면 눈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정도도 있었죠. 나는 무리

4) 이화자(1934년 생, 서귀포시 회수동), 2005. 7. 16. 채록.

5) 김유순(1923년 생, 조천면 선흘리), 2006. 9. 27. 채록.

안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네 살난 여동생을 등에 업고, 여섯 살된 남동생은 앞에서, 여덟 살 여동생은 뒤에서 걸어가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남동생이 폭 쓰러졌고, 여덟 살 여동생이 슬그머니 주저앉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죠. 나도 총을 4번 맞았는데 왼쪽 엄지손가락에 총을 맞아서 피가 그치지 않았어요. 오른쪽 어깨로 나가고 한 발은 손등을 스치면서 엄지손가락이 맞았어요. 얼마 없어 토끼몰이작전을 한다더군요. 어머니는 표선 가서 하룻밤 잤다가 남원에 와서 총살당했어요. 아버지가 다음날 그 지점에 가 찢자국을 헤치니까 두 동생이 보였어요. 손으로 파서 그 자리에 땅을 다 파서 묻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디 묻혔는지 어떻게 해서든 알아들 건데 찾지도 못하고.”⁶⁾

김홍석은 어머니와 세 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살아남았지만 동생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신의 공간이었던 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홀로 떨어져 죽거나 총상으로 희생당했다. 다음은 산중에서 얼어서 죽을 지경에 처했던 어린이들을 목격한 한 증언자의 이야기이다.

“산으로 피신 다니던 보난 사람 죽은 거 천지라. 고모가 아기 업고 다니단 스러져 이선. 스물 난 처년디 고몬 죽고 애긴 살아서. 세 살 난 애긴디. 도련은 그런 디 많아. 다 죽어 부러질거라. 눈비 맞고 먹진 안 허곡 허난. 고모 일어나랜 죽은 고모신디 강 영 일어나랜. 죽은 고모 얼굴에 가서 애기가 얼굴을 대고 그러디다. 49년 봄이라도 산은 춥고 비 오꼭 아기덜도 엄마가 업고 달리고 막 도망치다가도 애기 내볼고도 들앗수다.”⁷⁾

6) 김홍석(1939년 생, 남원읍 의귀리), 2006. 9. 28. 채록.

7) 송옥수(1927년 생, 제주시 삼양동), 2005. 4. 25. 채록.

중산간 무차별 학살이 이뤄지던 시기, 마을 주민들이 은둔지로 여겨 찾아 들어간 곳은 마을의 자연 동굴이었다. 1948년 10월 이후 1949년 3월 사이, 중산간지역의 주민들은 숨어 다니다가 토벌대의 눈에 띄기만 하면 무차별 총살을 당했다. 애월면 어음리 빌레못굴, 조천면 선흘리 목시물굴, 구좌면 세화리 다랑쉬굴 등 피난지 굴에서도 아이들의 죽음은 확인된다.

그 가운데 빌레못굴은 1949년 1월 애월면 남읍리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 노약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피난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빌레못굴의 학살 사례는 토벌대의 잔혹한 아동학살의 상징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다.

토벌대가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된 배경에는 어도리 구물동 무장대 습격사건⁸⁾ 추격에서 비롯된다. 5~6명의 애월지서 순경들과 민보단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 안팎의 토벌대가 토벌을 가던 중 우연히 굴 밖으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빌레못굴을 발견한 것이다. 토벌대는 굴 속의 주민들을 굴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모두 학살했다.

거기서 양태병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학살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학살 바로 후에 굴 밖으로 나와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곳에서 맨 처음 다리를 매쳐 학살된 아이가 서너 살 아이였다고 기억했다.⁹⁾ 그런데 굴 밖에서 이 학살의 장면을 본 목격자는 더 어린 아기였다고 기억했다. 다음은 당시 애월면 직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그 학살의 현장을 목격했던 임병모의 증언이다.

8) 제주시 애월면 어도리 구물동 습격사건은 제주4·3연구소, 『4·3장정』 3(1990)에 잘 나와 있다.

9)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428회, 1998. 10. 16.

“거의 아기엄마들이야. 부녀자들, 애기를 안아있는 사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 있어. 출밖에 전부 나오라고 해서 앉았지. 그대놓고 신분파악을 하였지. 우리는 빙 둘러서 그것을 봤거든. 엄마는 삼십오세 정도, 갈증이 적 삼입고 얼굴은 시꺼멓고 하여튼 안고 있었어. 애기 안은 사람은 그분 밖에 없었어. 그대 놓고 전부 쏘아 부렸는데. 아직 젖먹인데 물애기, 출왓 박혀있는 생들에 아기 엄마가 안은 애기를, 걸어다니는 애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물애기, 어린애기야. 그 애기를 양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돌에 몇 차례 매쳤을 거야. 순경이 그랬어. 다섯 살 아이는 총살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 그래도 쏘았지.”¹⁰⁾

아무런 저항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가한 학살의 방식은 너무나 처참했다. 맨 처음 갓난아이를 돌에 매친 것이다. 순경들은 그 가운데 열다섯 살 가량의 아이 한 명만 포승을 채워가지고 애월 저서에 데려갔다고 한다. 그 아이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순경들이 로스케! 로스케! 하면서 갓난 말이야. 빨리 가란 말이야. 빨갱이 새끼야! 하는 말인 것 같애. 그 열다섯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49년 1월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기야.”¹¹⁾

‘로스케’란 사전적 의미로는 ‘러시아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그것의 상징은 ‘빨갱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사람이

10) 임병모(1930년 생, 서울시 성동구), 2006. 8. 21. 채록.

11) 임병모와 관련한 증언은 양태병((1927년 생, 애월읍 어음1리, 2006. 7. 14. 채록)의 증언에서도 거의 일치한다. (『진상조사보고서』, p.410.)에도 잘 나와 있다.) 양태병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빌레못굴의 유일한 생존자이다. 그는 당시 매쳐 죽은 아이는 3~4세 난 아이였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임병모는 당시 매친 아이는 양태병의 증언과는 달리 한 아이, 그것도 어린 아기였다고 증언했다. 또 한달 후 현장에 갔던 친족 진운경은 아이의 모친은 27세였고 그때 매쳐 죽은 아이는 한 살짜리 남아라고 했다.

아닌 ‘빨갱이’를 죽이고 유린한 것으로 자위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빨갱이’는 죽어도 될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¹²⁾

이러한 빌레못굴의 비인간적인 학살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특히 이때 학살당한 한 살짜리 아기의 죽음은 온 가족의 몰살을 의미했다. 다음은 그때 빌레못굴 현장에서 그 시신을 수습했던 친족의 증언이다.

“나는 열네 살이었는데 중학생이었죠. 2~3개월 후 가서 보니깐 아기는 엄마곁에 안겨서 묻혔어요. 흙만 지쳐(살짝 덮여) 있었는데 의욕도 두상이 완전히 절단났었습니다. 아기를 죽여부난 항의하자 그 엄마를 개머리판으로 때려쳤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부숴져 있었습니다. 그 송장을 직접 파서 내가 잘 수습 했습니다. 아기는 음력 2월에 낳은 애기, 한 살된 아기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변용옥(27)이고, 아기는 이름도 없으니 현아기로 올렸습니다.”¹³⁾

산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가족과 아기까지 모두 ‘빨갱이 취급’을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행위는 다른 굴에서도 발생했다.

1948년 11월 25일부터 연 사흘째 주민들이 은신했던 굴이 잇따라 발각됨으로써 선홍리 주민들은 초토화작전 초기에 대부분 희생을 치렀다. 11월 25일 반못굴이 처음으로 발각됐다. 군인들은 15명 가량을 즉결 총살했다. 몇몇 사람들은 살린 채 주둔지인 함덕국민학교로 끌고 갔다. 11월 26일 군인들은 전날 반못굴에서 잡은 사람을 다그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은신해 있던 목시물굴을 찾아냈다. 군인들은 아기 업은 여자와 노인 등 노약자는 함덕국민학교로 끌고 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총살 후 회

12)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79.

13) 진운경(1934년 생, 애월읍 남읍리), 2006. 10. 3. 채록.

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웠다.¹⁴⁾

1948년 12월 18일에는 무차별학살극을 피해 중산간에 은신해 있던 사람들이 대거 희생됐다. 이들 중 ‘다랑쉬굴’에 숨었던 사람들은 토벌대가 밖에서 연기를 피우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 가운데 열 살의 어린이 손만채도 희생됐다.¹⁵⁾

여전히 굴속에서 가장 크게 위협에 처한 존재는 어린 아기였다. 피신자들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자신들도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런 와중에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가 아이가 숨진 경우도 발생했다. 일시적 피난처로서 굴속의 삶은 사선을 비껴나가게도 했으나 학살의 처참한 참극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번은 숯 굽는 굴 집 위에서 순경들이 애길 주고받는 거야. 이제 애기가 울어버리면 다 죽지 안 험니까? 그래서 이불을 있는 대로 다 덮었더니 걸리지는 안 허고 무사히 살기는 살았는데, 순경들이 가고 (이불을) 걷어보니까는 애기들이 숨막혀 죽었어요.”¹⁶⁾

다음의 사례는 피신 중 부모가 입을 틀어막았다가 죽은 경우이다. 그것은 토벌대의 학살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굴 속에서 한 살 된 아기가 앙앙 울어가난 남편이 부인한테 애기 울면 다 붙잡힌다고 울게 하지 말라고, 입을 막으라고 해십주. 경허난 엄마가 할 수 없이 입을 틀어막았는데 곧 소리가 안 나요. 굴 밖에서 토벌대가 나오라고 하니깐 굴 밖으로 나오는데 애기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있었다고 애기

14)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411.

15)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p.53.

16)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권, 한울, 1989, p.213.

시신을 망테기에 담아 나와서 굴 밖 나뭇가지에 걸어놔줬주. 나는 그때 다른 시신들이 학살당한 후 불에 태워서 버려지자 나중에 그 시신들을 전부 묻었는데, 그때 나뭇가지에 매달린 망테기가 보여 그것을 내려 놓고보니 아기가 있어서 함께 묻었어요.”¹⁷⁾

한 발만 헛디디면 죽는 상황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로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부모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상처를 객관화할 수 있었다. 당시 동광리에서 토벌대에 의해 가옥이 불에 타 없어지자 어린 세 아이들을 돌볼 길이 없었다는 이○춘의 기억이다.

“그땐 어명이 어명이라서게. 언제 죽을지 모르난. 죽기 아니민 살기 뿐이 난. 몽땅 불태워부난 우리 아기들은 어디간지 모르고, 집도 절도 어시난 네 살 난 건 걸리곡 세 살 두 살 난 거는 짐패로 업언. 어명이 어디십디가게. 밤에 길에 내부런 돌단 보난. 뒷날 가보난 일언 죽어부런. 안양 땡기단 것도 죽고. 생각허민 기가막힌 노릇입주.”¹⁸⁾

이 말은 역설적이다. “그땐 어명이 어명이라서게”란 말 속에는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체념과 한스러움이 배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집단학살

무차별 학살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던 것은 집단학살 현장에서였다. 초토화작전은 중산간 마을의 95%를 태워버렸다. 그렇게 사라진 마을의

17) 김형조(1922년 생, 조천읍 선흘리), 고성준(1925년 생, 조천읍 선흘리) 2006. 9. 27. 함께 채록.

18) 이○춘(1925년 생, 대정읍 영락리), 2005. 10. 3. 채록.

하나인 애월면 소길리는 4·3 당시 오지 중의 오지였다. 이 곳의 집단 학살에서도 아이들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1948년 11월 13일 아침이었다. 후례시를 들고 군인들이 집으로 들어서 “일어나라.”고 외쳤다. 군복 입고 칼빈소총 등을 든 군인들은 15가호가 살던 중산간 원동마을을 깨웠다. 군인들이 온 마을을 뒤졌지만 무장대는 없었다. 그럼에도 군인들은 애꿎은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했다. 이날만 원동주민 34명이 희생됐다.¹⁹⁾ 네 살, 일곱 살짜리 어린 아이까지 희생됐다. 다음은 그 광풍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의 증언이다.

“아버지, 의붓 엄마, 열 여섯 누이동생, 의붓 엄마가 다섯 살 남동생을 등에 업은 양 총을 쏘아부니까 딱 엎어져부니까 당한 거지요. 실탄이 업은 우리 동생 등으로 해서 엄마 머리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엄마는 머리를 쏘려서 머리는 한불 타서.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어붙고. 그 당시에 어린아들이란 건 부모하고 같이 있다가 총살되면 같이 총살되는 거니까.”²⁰⁾

토벌대는 저녁 8시 경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부 총살시켰다. 그런데 당시 17세의 생존자는 총을 쏘기 직전에 군인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가혹한 학살의 방법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였다.

“남자는 총으로 팡 쏘앙 죽이민 갈라정 죽고 여자는 팡 쏘오민 엎더정 죽곡 어린애기는 쏘앙 죽이민 뭐 악악 혼 세 번 이상 울어서 죽고 어른은 아무 꺽소리도 못허고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철모른 애기도 죄

19)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p.388.

20) 고남보(1932년 생, 제주시 용담1동) 2006. 7. 4. 채록.

가 시난 죽인 거라? 완전히 독재주. 민주주의라서야 그럴 수가 잇수과.”²¹⁾

집단학살기 군인들에 의해 굴속에 피신했다가 붙잡혔던 김명원은 태어난지 보름밖에 안 된 갓난동생과 어머니와 의귀국민학교로 끌려갔다. 거기서 어머니는 학살당하고 자신과 동생들은 구사일생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행된 학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의귀교로 잡혀가니까 50세 미만 다 나오라고. 우리 어머니도 애길 안고 나가려니 애긴 놓고 오라고. 애길 내게 맡기고 어머니 나가서 15분 있으니 콩볶듯이 요란한 총소리가 나는 거라. 나이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 다 죽어 부럼젠. 기가 막히드라고. 애기가 우니까 안고 밖에 나가보니까 수망리 현면장님이 날 보더니 너 병하아들 아니냐. 식구 다 데리고 나오라고. 급수차에 타서 남원리에 갔어. 우린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그때 김일석, 양을령이도 동창인데 한 구덩이에서 다 쏘앙 죽여부렸어. 우리보단 어린아이들 5~6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요번 이장철 때 보난 어린아이 뼈들은 다 녹아 부런 안 보이더라고.”²²⁾

그날 의귀교에서 죽은 아이들은 방치되었다가 후일 유족들에 의해 합장묘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김명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죽어서도 흔적이 남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집단학살로 아이들이 슬하게 희생된 곳으로는 1948년 11월 15일 표선면 가시리를 빼놓을 수 없다. 토벌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격을 가했다. 이때 어린 아이들이 유독 많았던 안인순 가족의 경우, 어린이 12명을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살배기부터 네 살, 일곱 살 어

21) 고남보, 위와 같음.

22) 김명원(1933년 생, 대정읍 하모리), 2006. 10. 26. 채록.

린 아이들까지 희생을 물고 왔다. 이때 당시 열 네 살이었던 안인순은 신흥리 외갓집으로 숨어살았던 덕에 살 수 있었다.

“우리 집 5남매, 작은 아버지네 집, 사촌 고모 아들 3남매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네 가족 열일곱 살(남), 일곱 살(여), 네 살(여), 한 살(여)짜리와 우리 친동생 열두 살(여), 열일곱 살, 열아홉 살 언니, 고모님과 열두 살 남자, 일곱 살 여자, 네 살 남자아이 모두 14식구를 잃어 부러수다. 토벌대가 집안에 있는데 고모님 초가집이 으스스한 데라고 숨어 있었는데, 집안에 불을 붙여분집주. 고모님네는 멸족됐습니다.”²³⁾

가족 가운데 홀로 생존하게 된 안인순은 이로 인해 가문의 멸족을 가져오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멸족된 집안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중산간 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살상이 이뤄지던 시기, 제주읍 용강리에서도 아이들의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 1949년 2월 4일은 용강리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날이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우왕좌왕 도망쳐야 했다. 이날의 희생자는 발 빠르게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나 부녀자여서 그 참혹함을 더했다. 이때 주민 105명이 희생됐다.²⁴⁾ 다행히 총살을 당한 시신들에 깔려서 살아났던 한 생존자는 이날만 영·유아들이 20명 이상은 죽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²⁵⁾

4·3시기 전체 아동 희생자 통계를 보면 남자 아이들의 희생이 훨씬 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령 남자 아이와 함께 학살터에 갔어도 여자 아이만 살아남은 경우도 있었다.

23) 안인순(1934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9. 28. 채록.

24)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406.

25) 고병호(1930년 생, 제주시 용강동), 2006. 11. 1. 채록.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십주. 우리 조카들이영 남동생이영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일곱 살 난 거 4명이 죽어십주. 세 살, 대여섯 살난 아이들 20명 이상 죽어실거우다. 대개 30대 미만 부모들이 도망쳤으니까. 젊은 부모가 업은 아이들이 대부분입주. 도망치다가 총으로, 창으로 찔려 죽어부런. 별 죽된 집안이 많이 나와십주. 내 남동생은 일곱 살, 여조카는 열두 살이라신디 함덕까지 군인들이 끌고 간 거기 함덕 입구에서 죽여부러수다. 여자 아인 살리고 남자 아이는 죽여분거라마썸. 진압된 뒤에 시체 찾안. 우리 조카는 연고자가 없다고 나중에 삼양에 남의 수양딸로 주어부런. 5~6개월 있단 조카 찾아왔수다.”²⁶⁾

살아남은 아이는 남의 집 수양딸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또한 토벌대를 피해 집안의 돼지우리에 피신했다가 학살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되었던 아이들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이때 군경 토벌대의 지휘통제권을 쥐고 있던 쪽은 미군이었다. 다음은 주한미군 사령부 「G-2 일일보고서」에 나온, 아이들의 죽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1949년 2월 20일 도두리에서 76명의 반도들이 민보단에 의해 죽창에 찔려 죽었다. 사망자들 중에는 5명의 여인과 중학생 정도 나이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과 군기대(한국군 헌병)가 그 작전을 감독했다. 논평=4명의 미군 군사고문단원이 도착했을 때 38명은 이미 처형돼 있었고 38명의 처형은 우연히 목격됐다.²⁷⁾

제주4·3은 세계사의 냉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역의 하나였던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이제 명백해졌다

26) 고병호, 위와 같음.

2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March 3, 1949.

고 할 수 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연히 목격한 일이라는 듯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소개학살

무차별 학살 후에는 집을 소개하는 방법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은 다행히 운이 좋아 살아난 경우도 있었으나 미처 빠져나 오지 못해 홀로 남겨져 있다가, 혹은 가족과 함께 몰살당했다.

1948년 12월 5일 구좌면 하도리 오맹은의 경우, 이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 두 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살아 남았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자신만 단 한 발의 차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비껴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현장에서 갓난 동생을 들쳐 업고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다음은 당시 아홉 살이었던 오맹은의 증언이다.

“그날은 오전에 날이 좋아서 조코고리를 내놓았다가 비가 오니까 빨감들을 전부 들인 다음이었죠. 마당에서 조를 담으려는 찰라에 토벌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일곱 살, 다섯 살 두 동생까지 전부 총살하고 집 세거리 전부 불 붙이고 우리 두 살짜리 누이동생 마루 구덕에 누워있으니까 건 내버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마썸. 죽이는 건 직접 안 봤는데 곱아들어서 그것을 다 들었지요. 집으로 들어와보니 우리 어머니 축담 밑에 쓰러져 죽고 할아버지 대문앞 곱들 옆에서 돌아가셨고 아파서 누워있던 아버지 방에서 돌아가셨고 그 동생 들은 숨젠 돌단 거기서 죽었습니다. 조 맥이 어리니까 팡팡해가니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불을 질러부니까 마당 안에서. 그 후에야 난 대문으로 들어와서 구덕에 우는 애만 업어가지고 뒷담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²⁹⁾

28) 김동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p.8.

그는 경찰의 보복살해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어린 아이들이라 고 그대로 살려두지 않았다. 온 가족을 몰살했으며, 불을 질렀다. 오맹은은 그때 마루 구덕에서 우는 두 살배기 여동생을 등에 업고 불타는 집을 빠져나왔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공포감은 안중에 없었다. 자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힘에 부쳐 방에 있던 아버지의 시신을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은 지금도 한스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였음에도 극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신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총살을 당했다. 또한 어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아이들은 불에 타 숨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한 군인들의 무차별 학살은 아이들이 “살려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집마당으로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아홉 살 시동생이 엄마와 난간에서 달려뛰서, 달려뛰서 하는 걸 군인들이 총을 쏘아부렸습니다. 경현 후에 집을 불태워부니까 타 죽었습니다. 어머니 복장만 조금 살아있고 애긴 다 타죽곡.”³⁰⁾

어디 시신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경우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4) 기아학살

아동의 술한 죽음 가운데 하나는 직접 학살은 아니나 기아나 피신 중

29) 오맹은(1940년 생, 구좌읍 하도리), 2006. 9. 1. 채록.

30) 고병열(1930년 생, 제주시 광령 2리), 2005. 8. 16. 채록.

의 희생을 들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산으로, 별판으로 피신하던 아이들의 목숨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배고픔이었다. 더구나 영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먹지 못하니 아이가 먹을 젖이 나오지 않아 죽은 경우도 많았다. 아이들의 죽음은 곧 부모의 운명과 함께 했다.

“당시 난 열일곱 살이라 낫수다. 형수가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형수란 사람이 마당에서 시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한테 욕을 봤수다. 마당에 시부모 세워놓고, 안방에서 욕을 봤지요. 형수는 죽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어요 부모는 용서하고 이해를 했는데 형수는 핏병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도 채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만 하나 남겨놓았는데 당시 한 살도 채 안 되는 아기도 아라리 재건부락에서 엄마 젖을 못 먹어 죽었습니다.”³¹⁾

어린 눈에 비친 아이들의 희생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허둥지둥 이산 저산을 헤매던 어린 희생자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기아로 죽어갔다.

“일곱 살과 두 살은 이름도 모르니까 희생자 명단에 올리지도 않았수다. 돌오름 근처에서 토벌대가 다울리난(내모니) 어머니 애기구덕 지언 뛰어가 단 엮어지난 다 죽었수다. 세 살 여동생도 올리지도 않았수다. 기가막힌 노릇이주. 가시리 애기무덤 잇수다. 다 불 붙영 죽여부난.”³²⁾

이처럼 그 아이들은 이름도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호적에조차 올리 지 않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애기’, 혹은 ‘○명미정’ 등의 이름으로 희생자 신고서에 올려졌다. 영아때 병들어 죽는 경우도 많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기들이 학령기에 이르러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될

31) 강○문(1932년 생, 제주시 이도동), 2006. 7. 3. 채록.

32) 강공림(1936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9. 27. 채록.

때까지 쉽게 호적에 올리는 것을 꺼렸던 탓도 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기도 전에 희생된 것이다. 때문에 희생자 명단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다.

“동생은 어린 아이라부난 희생자로 올리지도 않았수다. 호적에도 없고하니까 안 올렸수다.”³³⁾

당시 다섯 살의 오양자는 1948년 겨울 불레오름 부근에서 가족들을 잃었다. 어머니, 아홉 살 언니와 세 살 동생이 피신을 다니던 중 언니는 총상으로, 동생은 기아로 죽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동생은 호적에도 없어서 희생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다.

“1948년 12월 불레오름 부근에서 군인 토벌대들이 총으로 쏘니까 한라산에서 아홉 살 언니는 머리에 총 맞앙 죽고, 나 아래 세 살 여동생은 먹을 것도 없고 눈 위에서 춥고 해서…애기니까 어머니가 안아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죽어부러수다. 동생은 호적에도 안 올라가시난 나 이름만 양순이렌 험센 허엿수다. 난 다섯 살일 때, 어머니영 같이 있었는데 어땡허단보난 난 살안. 나 혼자 어디레 간 목숨 질건 살단 내려온 거라. 겨울에 내려오니까 귀순 해연 수용소에 갔다가 다 보낼 기간 되니까. 나중에 어머니 환병 난 돌아가신 거라마썸.”³⁴⁾

다급한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는 자식들은 살았으나 유아일수록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되면 함께 몰살당한다고 아이만 놔두고 피

33) 오양자(1943년 생, 안덕면 감산리), 2005. 9. 29. 채록.

34) 오양자, 위와 같음.

신가는 일도 있었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부모는 평온을 찾은 후에 피로워했다. 4·3때 벌어진 무차별학살의 와중에 삶과 죽음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양상들이다.

영·유아의 경우, 길에 버려져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어머니들은 “그땐 어머님이 어머님이 아니라.” “길에 내부렸단 다시 강 보 난 죽어부린.” 같은 표현에서 참혹했던 상황들을 재현한다. 부모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자책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양심도, 이성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야만의 시대에 자식마저 지켜내지 못했음을 스스로 질책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열두 살 때 우리 아버질 묶어서 철창으로 찢러버리는 장면을 봤어요. 난 내창에서 피신 중이었어요. 피신할 때 세 살 여동생만 놔두고 도망치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 굶주려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6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덜, 남편을 잃고 피로워했지요.”³⁵⁾

어쩌다 학살터에서 살아남은 아기들은 다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곧 죽어갔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갓난 동생을 업고 살아남은 오맹은의 경우도 그의 여동생이 배고파 죽었다고 증언한다.

“갓난애 업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갓난이 누이동생은 젖 못 먹고 콩밥마저 귀했는데 얻어먹지 못해서 있다가 죽어십주. 어머니 소기 넘으니 까 죽었습니다. 세 살도 되기 전에. 그땐 어린애 죽는 것은 아무 걸로 생각 안 해십주.”³⁶⁾

35) 강공림, 위와 같음.

36) 오맹은(1940년 생, 구좌읍 하도리), 2006. 9. 1. 채록.

온 마을을 소개한다 하자 가족들은 경황없이 피신을 떠났다. 그 와중에 갓난애를 구덕에 놔두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굶주려 사망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발각될 것을 예측해서였다는 것이다.³⁷⁾ 4·3의 희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기아는 하나의 공포이며, 그것은 또 다른 학살과 다름없었다.

5) 행방불명

아동들은 보호자로부터 떨어지면서 부모를 찾아 헤매다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또한 부모와 함께 도피하던 중 홀로 떨어져 헤매 다니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피신 중인 사람들이 전부 발각될까봐 버리고 떠나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방불명은 어머니와 수감되던 중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살터에서 행방불명 되기도 했다.

“어머니가 동척회사에서 육지형무소로 가게 되자 젓먹이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가서 모친과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³⁸⁾

“당시 작은 아버님이 세 살이었는데 할머니 등에 업혀서 정방폭포에서 총살됐다는데 시신도 못 찾고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동광리에서 토벌대에 붙잡혀 끌려간 거지요. 할머니 제사 때 그 작은 아버님을 위해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있습니다.”³⁹⁾

열다섯 살 아동이 느닷없이 소년범으로 몰려 결국 육지형무소로 잡

37) 강○○(1936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7. 30. 채록.

38) 현치홍(1932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7. 11. 채록.

39) 부정유(1960년 생, 제주시 오라동), 2006. 7. 21. 채록.

혀간 경우도 속출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강창복의 형이 그 예이다. 1949년 12월 경찰은 “산과 연락하러 다닌다.”며 형을 잡으러 다녔다. 형은 붙잡혀 목포형무소를 거쳐 인천소년형무소로 이송되었는데 그후 행방 불명이 되었다. 당시 아홉 살이었던 강창복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형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무법천지였던 세상이었으니까 아무 죄도 없었는데 폭도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949년 말에 잡혀가서 맨 처음 목포형무소로 갔다가 인천소년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4~5개월 지낼 때 편지도 세 번 보내왔지요. 피부병에 걸렸다고 약을 보내달라고 하고. 몇 개월 있으니까 6·25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형, 그 아래 형, 누님 한 분, 여동생 한 명 등 모두 5남매가 있었는데 큰형님이 행방불명 된겁니다. 함께 잡혀갔던 마을사람 한 분의 말로는 형이 그 곳에서 너무나 구타를 당해 어린애처럼 울더라고 합니다.”⁴⁰⁾

이러한 행방불명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행방불명된 가족들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기도 했다고 한다.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영아들과 소년기 아동들의 행방불명은 현재의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구슬은 이처럼 고통스런 현재형이다.

6) 수감 사망

수용소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주로 영아들일수록 굶주려 계속 말라가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흔했다. 무엇보다 수용소에서 위험한 것은 질병이었다. 아이들은 홍역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

40) 강창복(1939년 생, 대정읍 신평리), 2006. 10. 3. 채록.

다. 영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수감되었다가 그 속에서 병에 걸려 삶과 죽음의 기로를 걷게 된다.

“세 살난 아기하고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7개월 동안 수감당하면, 음력 선달 초사흘 날 무명바지에 무명적삼만 입고 살았수다. 감옥 속에서 아이가 홍역을 앓아부런, 그때 해안동 여자와 송당리에서 온 여자가 모두 세 살배기 딸들을 데리고 들어왔수다. 그 아기들이 같이 홍역을 허다가 사흘 차이로 두 여자 아기가 죽었수다. 우리 아긴 통밀 밥에 톳을 소금에 씻어 무지하게 짠 밥이었는데도 그걸 삼켄. 우리 애기만 살안.”⁴¹⁾

질병 뿐 아니라 굶주림도 수감중인 영아들의 목숨을 크게 위협했다. 여기엔 어떠한 처방도 없었다. 이러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다. 다 음은 그렇게 죽어가던 동생을 목격한 서술이다.

“두 살난 여동생이 주정공장에서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귀순해서 주정공장에 수용되었는데 갓 돌 지난 아기니까 어머니가 늘 안아있었지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어머니 젓이 말라버렸습니다. 계속 시들시들하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어느 날 아침되니 죽어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던 시절이었으니까. 주정공장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소금에 몰도 못 먹었으니까.”⁴²⁾

뿐만이 아니었다. 4·3시기 6남 1녀 중 어린 세 아들을 잃은 고난향은 수용소에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는 바람에 ‘폭도’ 누명을 쓰고 전주형 무소로 수감되었고, 그 속에서 아들을 잃었다. 그때 일만 기억하면 죄책감이 들고 징그럽다고 한다.

41) 오갑추(1925년 생, 제주시 아라1동), 2006. 7. 12. 채록.

42) 김주범(1934년 생, 제주시 일도2동), 2006. 10. 2. 채록.

“아들을 거기서 죽게 허였주, 징그러웠던 일이라. 다섯 살난 거 데린 간 거기서 흥역으로 죽게해 부린. 생각만 해도 징그러완.”⁴³⁾

‘아들을 거기서 죽게 허였주’란 표현에서 아이의 죽음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성을 읽을 수 있다. 수용소에는 아이를 내버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떠들던 아이들을 토벌대가 데리고 오면 아기 없는 사람들이 데려가기도 했다.

영아들은 잃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근거를 못 찾는 경우도 많았다. 생존자들은 영아 희생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기도 한다. 마을마다 ‘애기무덤’들이 더 늘어났다.

“그때 많은 애기들이 죽었습니다. 애기무덤을 ‘어축’이라고 해서 이 마을에 있습니다. 기가막힌 노릇입주. 물애기털은 잃어버리민 그만이라 어디서 시체를 찾겠습니까. 숨어있다 발각되면 폭도라고 하면서 죽였으니까. 대왓디 강(대밭에 가서) 숨곡… 어차피 곱으레만 다녔죠. 무서워서 ‘살려줍서’ 허민 폭도신디 ‘쌀 날랐져’. 낭에 걸엉 죽이고 총 쏘앙 죽이고, 여자들은 개 외동산에서 옷을 먼(전부) 벗경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두 살, 세 살짜리는 데껴부난 끝났주. 집에 불붙여부난 죽기도허고. 막막한 세상이어십주. 잊을 수가 없지요.”⁴⁴⁾

아동 생존자들에게 학살의 기억은 끔찍하였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이다.

다종다양한 학살의 만행 가운데 하나는 “토산리 창고 부근에서 행해진 학살의 상황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총살할 때

43) 고난향(1907년 생, 2000년 작고, 제주도 오라동), 1993. 5. 25. 채록.

44) 강공립, 앞과 같음.

박수치라고 하고는 총살 때 애기가 풀풀 기어서 위로 올라오니까 아기에게도 총을 쏘았다.”⁴⁵⁾는 것이다.

또한 가시리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는 한 여인이 토벌대에게 희롱당하다 아기와 함께 죽은 이야기가 있다. “아무개 경찰은 한 젊고 예쁜 여자를 잡아와 ‘옷을 벗어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 주겠다’고 했으나 시키는대로 한 그 여자를 향해 총을 쏘았고, 아기가 그 위에서 울어대자 한 군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아기 혼자 여기 내버려놔야 살 수가 없다’며 아기에게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⁴⁶⁾ 갓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비인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7) 태아학살

집단학살기 임신부들의 죽음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신부 학살은 두 생명에 대한 학살이라고 볼 수 있다. 애월면 하귀리 ‘비학동산 학살사건’은 임신부를 발가벗겨 팽나무에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찢러 학살하는 등 그 잔혹함에 대해 주변에서 널리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다. 임신부는 고정규의 아내였다.⁴⁷⁾ 다음은 고정규의 조카인 고남보의 증언이다.

“숙부가 피신했다 하면 그날 할아버지와 숙모가 돌아가셨수다. 난 그때 급히 숨었는데 토벌대가 물러간 후 달려가 보니 숙모는 옷이 훌쩍 벗겨진 채 창에 마구 찢려 이섯수다. 숙모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정면 출신 김

45)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400.

46)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pp.100-101.

47) 주민들은 이후 끔찍했던 당시를 자꾸 상기시키는 이 팽나무를 배어 내고 그 자리에 동민회관을 세웠다.

씨라고 했수다.”⁴⁸⁾

동광리 무등이왓은 4·3 광풍으로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소개령이 내려진 1948년 11월 15일 10여 명의 노인들이 학살된 것⁴⁹⁾을 시작으로 4·3이 끝날 때까지 2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때 토벌대는 만삭의 임산부와 두 자녀까지 무차별 학살했다. 이 사건은 학살의 극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다음은 작은어머니와 그 자식들이 죽는 광경을 가까이 숨어서 목격했다는 당시 열여덟 살이었던 고상봉의 서술이다.

“나도 같이 곱안 살았는데 작은아버지영 작은어머닌 소까이(소개) 가지 안 허난 모멸(메밀)낭으로 집같이 늘을 늘영 거기서 숨언 살았수다. 발이 나물발이난 ‘토벌대들 올라 왓저’ 허민 와상와상 도망가는 거 보여. 나영 작은 아버지진 숨어 부렸는데 나물 같아둔 발이난 토벌대들이 늑뻘(무) 매어 먹으레 들어왔단 얘기올음 소리나난 ‘이레 나와’ 허명 다 끌어내언 죽여부렸주. ‘살려줍서’ ‘죽여야한다’ 허는 소리가 나는 거라. 작은어머닌 곧 태어날 애기 배어신디 찢러부런. 세 살, 다섯 살 난 아들 형제도 창으로 죽여 부런. 애기덜은 두더닐(생식기) 찢러분 거라. 곱앗당 나완 보난 숨만 붙언. 누게가 죽엿덴 말도 해나서. 토벌 온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 조금 아는 청년인디 한 아기라도 살려주민 데려가 살리켄 허여신디 ‘살려두민 불씨만 된다’ 허명 죽여부렸덴. 너무 끔찍해. 토벌대들이 모멸낭에 불붙영 다 가부난 우리도 나와부런. 아이가 뉘 죄가 이서.”⁵⁰⁾

동광리 마을 밭에 숨어 있었던 이들 가족은 이렇게 몰살되었다. 이때 토벌대의 총알받이로 현장에 이끌려 왔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

48) 고남보, 앞과 같음.

4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1998, p.251.

50) 고상봉(1930년 생, 제주시 봉개동), 2006. 10. 23. 채록.

하나만 살려주면 데려다 길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토벌대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아이를 남겨두면 “불씨가 된다.”는 것이었다. 후환을 생각해서 무조건 학살했던 것이다.

8) 도피자가족학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토벌대는 도피자 가족으로 몰아붙였다. 도피자 가족으로 지목되면 갓난아기도 ‘빨갱이’가 되었다. 토벌대는 젓먹이에게까지 ‘빨갱이’를 적용시켰다. 대살(代殺)⁵¹⁾, 즉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대신 총살한 것이다.

1948년 11월 하도리에서는 토벌대가 도피자 가족이라며 한꺼번에 20여 명을 초가집에 수용시켰다가 학살하기도 했다. 이 곳에서의 학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젓먹이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세화리에서 소개 간 사람들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문철부도 도피자가족으로 수용되었다.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던 형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가버리자 도피자 가족이 되어 모두 수용소에 갇힌 것이었다.

열한 살 소년의 눈으로 그때 목격한 아이들에 대한 학살 장면은 자신의 경험처럼 각인되어 있다. 유년의 공포감은 오래 전에 죽은 타인의 존재마저 자기 기억 안으로 흡수되며 생생하게 촉발되는 것이다.

“한 달쯤 7평 정도 되는 집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애들이 ‘폭도새끼들’ 하면서 돌맹이를 던지고 가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그 때 밤낮 술만 마시고 하는 사람, 평안도 출신 순경이 들어오는 거야. 거기 김석종 씨 부인이 아기한테 젓을 먹이고 있었는데 애기 얼굴이 둥글둥글한게 잘 생겼어.

51) 사전적 의미로는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란 뜻이지만, 당시엔 ‘가족 대신 죽는 다’는 뜻으로 이 표현이 사용됐다.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391.

둘 지났을까 말까한 얘기였지. 그 부인한테 가서 '너 석종이 각지지' '예' '너 얘기 젓 먹었지' '너 아버지가 폭도새끼한테 젓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젓 먹었지' 허는 거라. 부인이 '애기가 막 울어서 먹였습니다' 허니까 '왜 폭도새끼한테 젓을 먹여' 막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 '넌 죽어야해'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날 데려다가 얘기하고 엄마하고 죽여버렸어. 연두망 모래동산으로 끌고가서 죽여버렸지. 거기서 사람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⁵²⁾

토벌대는 젓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4·3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위협에 처해 있었다. 토벌대는 젓을 먹고 있던 아기까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여 학살했던 것이다.

"상도 오○용 씨 부인하고 딸애기가 있었는데 그 애는 두 살도 안 된 애인데. 한참 후 음력 정월 7,8일경에 오후 무렵 순경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오○용 씨 부인한테 '너 오○용이 처지? 너 남편 어제 죽었어. 너도 천당에 가서 남편하고 잘 살아'하면서 끌어냈어. 이상하게 그 전날 애기가 밤새도록 울더라고. 우리 어머니랑 나이든 여자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수근대더라고. 애기 데리고 나오라고. 데리고 가더라고. 이렇게 문구멍으로 보니까 다 보여. 지서에 데려가는데 그 부인도 애기랑 데리고 막 끌고 연두망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어요."⁵³⁾

뿐만이 아니었다. 토벌대는 도피자가족이라고 지목되면 장소가 어디건 가리지 않고 찾아내서 학살했다. 더구나 초등학교에서 수업 받던 아동마저 도피자 가족이라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정권수의 동생은 우리보다 1년 선배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우리

52) 문철부(1938년 생, 제주시 이도동), 2006. 11. 2. 채록.

53) 문철부, 위와 같음.

팔촌형이 그 동생하고 동창이니까 친구라 나신디 울면서 애길 하던데요. 학교 수업 중이었는데, '너 나오라'고 해서 발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총소리가 나자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에게 묵념을 시켰다고 합니다."⁵⁴⁾

빨갱이 논리는 학살의 집행자들을 법적·도덕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⁵⁵⁾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든 '빨갱이'라고 낙인찍어 학살한 것이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아동학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Ⅲ.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특징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양상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다. 우선 대부분 초토화작전의 토벌전으로 인한 무차별 학살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변인들의 기억에 비인간화 학살의 유형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발생한 학살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군대의 공식적인 작전 명령에 기초하여 평소에 적이 활동하는 지역, 적과 내통했거나 적을 도와준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⁵⁶⁾

무차별 학살을 피해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무장대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학살됐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변마을로 소개했

54) 문철부, 위와 같음.

55)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52.

56) 김동춘, 앞의 책, p.211: 초토화 작전이란 적에 대해 잔혹하게 대처하고, 적 또는 '희생양'들을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위엄을 과시하며, 이를 목격한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무조건적인 복종심을 가지도록 하는 정치적인 행동인 것이다.

울지라도 가족들은 젊은이가 빠져 있는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부모의 희생은 수많은 자녀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부모에게 있어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우선이었으나 부모의 보호조차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중산간 마을 초토화작전 속에서 진행된 아동학살은 수많은 학살의 양상을 드러냈다.

비인간화 과정을 드러내는 단적인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한 권력 핵심부와 현장에서 학살을 집행한 군경 지휘관들을 사로잡았던 공통의 이데올로기는 “제주도민=빨갱이”라는 논리였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변방의 섬=모반의 섬”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소재로 삼아 “제주=빨갱이 섬”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조작된 이미지는 학살의 원인만이 아니라 그토록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까지도 설명해준다.⁵⁷⁾

발렌티노가 주장하는 대량학살의 3가지 개념 가운데 하나인 의도적인 학살에는 처형과 독가스 사용, 폭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 이외에도 기아, 노출, 의도적인 강탈과 파괴, 생필품 공급 제한 등에 따른 죽음까지도 포함한다.⁵⁸⁾ 행방불명 되거나 기아 사망한 경우도 또 다른 형태의 학살인 것이다.

자신의 피신으로 인해 어머니와 어린 자식 등 가족과 친척 12명을 잃은 부성방은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은 당시 우리 딸 중 제일 철든 것이 열두 살이고, 그 아래로 열 살, 여덟 살, 여섯 살난 아기들인데 이것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였는가?”라며 한탄했다.⁵⁹⁾

초토화의 참극 속에서 어린이들은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57) 최호근, 앞의 자료집, p.82.

58) 벤자민 발렌티노, 장원석·허호준 옮김, 앞의 책, 2006, p.34.

59)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297.

열어서 죽어가기도 하였다. 피신 중에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절멸될 것을 두려워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한편, 아동에 대한 무차별 체포나 구금도 있었다. “제1구 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 새벽 돌연히 애월면 하귀리 미수동에서 동리 중학생을 비롯한 국민학교 아동에까지 이르는 일대 검거를 단행하였는데 경찰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무허가 집회, 무허가 뼈라에 관한 증거서류가 발각된 것이 원인으로써 피검자 10여 명은 남로당 세포조직의 혐의자들이라 한다.”⁶⁰⁾는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살에는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토벌대의 명령과 요구에 응해야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살아남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제주에서 전개된 초토화 작전은 책임의식과 규율이 없는 집단에게 총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었다.⁶¹⁾

아동학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복학살이다. 가해자들은 보복과 후환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취지가 아이들까지 학살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도피자 가족으로 낙인찍히면 젓먹이도 ‘빨갱이’가 되었고, 무장대 습격사건이 발생하면 그 젓먹이들까지도 보복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이 학살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집단광기의 한가운데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

그것은 또한 후환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가해자들은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보복할까봐서” 학살터에서 아무도 살려 두지 않았다. 이는 후환에 대한 싹을 미리 없애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임을 의미한다.

60) 『제주신보』 1947년 8월 30일.

61)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p.373.

아기들의 이러한 처참한 죽음은 한국전쟁 시기 함평양민학살사건에서도 회자된다.

장교마을에서 군인들이 이미 숨진 김순란 씨(1929년 생)의 젖을 빨고 있는 두 살배기 아이 박양남을 사살하기도 하고, 미처 숨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재차 확인 사살을 했다고 마을사람들은 증언한다.⁶²⁾

가해자들이 임신부와 젖먹이까지 잔혹하게 학살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본보기로 삼고자 해서였는가. 광분해서였는가,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 다른 동물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이성'때문이다. 그러나 4·3에서의 아동학살이 보여지듯 인간의 이러한 속성은 아예 멸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은 반문명적인 사건이었다. 아동학살에 대한 구술자들의 경험을 헤아려보면 대부분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증언이었음이 확인된다. 설마 갓 난아이까지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몰살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수많은 아이들이 피신 중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또는 행방불명으로 사라졌다.

가죽을 잃고 헤매다, 부모와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서창 혹은 토

62) 함평양민학살사건은 1950년 12월 5일부터 6·25가 일어난 이듬해 정월 보름경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갈 무렵까지 월야면 350명,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으로 총 524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표인주, 「전쟁경험과 공동체 문화」,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pp.147-148.

벌대에 납치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들도 보인다. 어머니 혹은 할머니 등에 업혀 다니다 행방불명 혹은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수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때 14세 아동의 몸으로 범죄자가 되어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4·3시기 아동학살의 특징을 크게 보면, 하나는 비인간화의 전형을 보이는 것들이며, 다른 하나는 보복·후환의 불씨 제거로서의 무차별 학살이다. 어떤 가해자는 태아와 갓난애도 살려두면 불씨가 된다고 학살하기도 하였다.

제주4·3시기 아동학살의 유형은 전반적인 4·3 학살의 규모를 시사함은 물론 인간이 저질렀던 야만성을 증거한다. 따라서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주4·3시기 희생되었으나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했던, 따라서 희생자 신고 명부에서도 누락된 수많은 아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동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들베개, 2000.
- 발렌티노, 벤자민. 장원석·허호준 역,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안경환, 「기억과 용서」, 『당대비평』 28권, 2004.
-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권, 한울, 1989.
-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 표인주, 「전쟁경험과 공동체 문화」, 『전쟁과 사람들』, 한올아카데미, 2003.
-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March 3, 1949.
- 『제주신보』 1947년 8월 30일.

Abstract

The pattern analysis of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Huh, Young-seon *

Jeju 4·3 is the incident that the minorities' human rights were annihilated by the state power. Especially, child massacre expressed the magnitude of the indiscriminate mass killings. Unlike adults, children were so weak to overcome the dangers go through. They lacked the recognition capabilities or self-defence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dangers.

They were randomly slaughtered or missed while they were escaped with their families and they were starved to death. It suggests that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violates the peace and human rights.

But, the child massacre in the process of Jeju 4·3 period has not take researcher's attention, and there is no study in this fie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ze of the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It also aims to review the patterns of the child massacre and the characters of it, using the oral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who have experienced the massacre.

The space of the memory of the nameless children victims is needed to make the anti-civilized child massacres future lessons.

*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Ph.D.course,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Key Words

children massacre, patterns of massacre, scorched earth operation, missing, collective killings, dehumanization, random massacre

교신: 허영선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학협동과정)

(E-mail: kanna6418@naver.com 전화: 016-690-8101)

최초 투고일 2006. 12. 14

최종 접수일 2007. 1. 22